

negotiate with hostile or indifferent people to keep the calendrical project alive. It is likely that much of Li's standpoint had been prescribed by Xu.

Much has recently been revealed of the syncretistic attitudes of Xu and his prominent contemporary converts.⁶⁾ They are suggested to have influenced Matteo Ricci in the formulation of Futu-rūn. By close examination, it can be seen that these two arguments share the same basic structure, and the same practical purposes, too. Figurism, a later variation of Futu-rūn, reveals even more striking resemblances to Xi-yi-dong-yuan-lun.

의료기술의 역사적 기여

東北大 吉田 忠

최근 의료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C. T. 스캐너 초음파 진단 장치, 혈액 자동분석기 등 잇달아 새로운 기계가 개발되어 그 실용화에 따라 진단·의료에 있어서 위력을 발휘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의료에 있어서의 기계의 到來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료기술의 혁신은, 사회에 대해 여러가지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진단·치료 기술의 진전과 같이, 그것으로 건강의 유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편으로 사회 자원의 소비와 폐해를 놓고 있다.

이 의미로, 지금까지 도입해온 많은 새로운 기술이 과연 우리들의 건강유지·개선에 기여해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역사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지금 한번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의 시대는 세균학의 발달과 예방조치, 화학요법(항결핵약·항생물질)을 비롯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 이르는 급속한 의료기술의 진전과 그 효과를 보았다. 그로 인해 의료가 이루어 놓은 역할은 의심할 바 없는 전제로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Mckewon(1976)는 영국의 사망률을 검토한 결과 “사망률의 저하에 대한 의료의 기여도 극히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그후, 미국과 영국 등지에 같은 조사연구가 행해졌는데, 그 결과는 모두 Mckewon의 결론을 지지하는 바이었던 것이었다.

더욱 여러가지 의료 이외에 어떤 요소가 건강 개선에 대해 더욱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현재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논쟁 중이다. 반대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고, 더구나 제2차대전 이후 일대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특이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의료가 이루어 놓은 역할은 다르다고 예상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장기 사망통계를 분석하고 일본의 의료기술의 도입, 진전과의 관련을 검토해서, 건강개선·유지에 대해 의료기술이 이룬 역할을 재평가하는 점을 소개하고 싶다.

이 재평가에 있어서 분석의 시점으로서 의료기술에 주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생활 상태의 개선 또는 공중 위생상의 시책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해서 다각적 분석을 더해 의료기술의 기여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서는 일본의 장기 사망통계를 과거 약 100년에 걸쳐 각종 자료로부터 수집하고 질병별 사망률 등을 정리한다. 그

6) Important works in this direction include J. Gernet, *Chine et Christianisme*(1982) and N. Standaert (聖神研究中心 譯), 「楊廷筠—明末天主教儒者」(1987).

리고, 얻은 자료에서 각 死因의 변화를 時系列的으로 분석하고 저하속도의 변화부터 시기적으로 구분한다. 이것들의 사망률의 經時的 변화와 각종의 의료기술의 도입 시기 등의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기여도를 분석한다. 사망률의 저하, 나아가서는 인구동태는 일본의 근대화를 생각하는 점에서도 중요한 실마리이다. 또, 의료기술의 기여의 재평가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라 하겠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진화론 수용의 비교

인하대 이 성 규

과학이란 그것을 낳은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과학사 연구의 성과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학이론이 어떠한 사상적 토양에서 발생 전개될 수 있는가는 그리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본고는 한일 두나라가 진화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이로부터 진화론을 극히 서양적인 자연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원래 다윈은 생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제창하였다. 이로부터 인간 사회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바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바, 한국과 일본에 주로 도입되고 논의된 것은 사회진화론이었다. 다윈이론은 서양에서는 격렬한 논의와 비판을 거치면서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 주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확립된 진리로서 여겨졌으며, 오직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자연선택)이라는 단순화된 공식으로 되어 그것이야말로 사회진보의 유일한 길인양 강조

되면서 다양한 이념 및 주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쓰였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진화론이 알려지는 시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진출이 가속되고 있었는데 이때에 한국의 선각자들에 의해, 경쟁에 이길수 있는 힘있는 자만이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가 설득력있게 널리 유포되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생물진화론의 수용과 논의는 극히 피상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서양에서 진화론적 논의가 당면하였고 궁극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필자는 본다. 첫째 인간은 이 자연계에서 특별하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둘째 종은 영원불변하며 초감각적인 실재이며, 셋째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완벽한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서양 생물학사를 통하여 강조되어 왔고 또 궁극적으로 진화론에 의해 부정되는 이 사상을 배양했던 것은 바로 서양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특이한 시간인 목적론적 자연관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되어 설계된 산물로서 모든 자연적인 존재는 각각 고유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타의 존재와는 이질적이고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자연은 하나의 '존재의 사다리'(Scale of Being)를 형성하고 인간은 그 정점에 있다. 목적론은 필연적으로 고유불변하는 종과 적응의 개념을 확립시켰고, 인간의 특권을 합리화시켰다. 일견하여 가장 반진화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론은 동시에 진화론을 낳아준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연관은 유기체적인 것이다. 이같은 자연관을 소유한 두사회에 있어서 다윈이론은 어떠한 충격도 문제도 제시할 수 없는 무관심 속의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